

## 경기지역 대의원 대상 특강 요지

<김대중 정부의 부채와 자산 확실히 승계하겠다>

“정책에 대한 비판은 차별화 아니다“

최근 대선주자 경선과정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진정한 차별화란 노선과 이념을 분명하게 달리 하는 것이다. 지난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자신을 후보로 만들어준 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, 그것도 모자라 김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매질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이런 것이 차별화다.

나는 일찍부터 <b>김대중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 하겠다고 말해왔다. '국민의 정부'의 경우 인사정책 등에 문제가 있어 이 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를 차별화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. 생산적 복지, 남북화해와 협력정책, 민주적 시장경제 등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과 이념은 옳았다고 본다. 내가 당선된다면 이같은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겠다. 그러나 인사정책과 같은 조정·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정치력 부재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.

“국민참여경선제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“

국민참여 경선제, 선호투표제 등 민주당의 쇄신대책은 한국정치사의 지평을 바꿀 획기적인 조치이다. 이를 둘러싸고 당안팎에서 '각 후보진영이 사람들을 동원해 엄청난 돈선거가 될 것'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기우일 뿐이다.

물론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. 민주당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보고 이같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설 길이 없을 것이다. 국민참여의 승리로 만들겠다는 노력과 다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국민참여경선제가 한국정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 당원이 노력하는 자세를 갖자. (끝)